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년 6월 2주차

- 12일 스페이스X 상장.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 극심할 것. 투자자 기대가 실망으로.
- 멕시코, USMCA 연장 기대 모멘텀. 22일 마블 테크놀로지, 플렉스 S&P500 편입. 아발론 베이&에쿼티 레지덴셜 아파트 리츠 합병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Mexico ETF(EWW), [미국주식] 마블&플렉스, [글로벌리츠] 아발론 베이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글로벌리츠 김다운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젠슨 황도 막지 못한 투매

-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미-이란 전쟁 이후 가장 큰 낙폭 기록
- 젠슨 황의 잇따른 시 협력 발언도 역부족, 증시 반등 효과는 제한적
- 투매 속 대부분 업종 하락. NAVER 홀로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Quant

[Soon to know] 불안한 시장 분위기, 눈길 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 증시 불안 속에도 이익 내리티브 유지 — 기업가치제고 목표 달성 시 주주환원 규모 추정
- 전년 대비 증익의 약 80%는 반도체 2社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FCF 50% 내 추가환원
- 목표 달성 시 환원수익률 상위 · 모니터링 기업 리스트 제시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Company Report] 성호전자: 광 I/O 시대의 정렬자

- ADS테크 인수를 통해 액티브 얼라인 장비회사로 변모
- 2028년부터 본격 개화가 예상되는 스케일업 광 시장
- 2028년 공장 증설분까지 선반영. 스케일업 광 개화속도가 관전포인트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Issue & News] 롯데쇼핑: 롯데쇼핑 CEO 간담회 후기

- 백화점 외국인 전용 카드 서비스 확대
- 대형마트 홈플러스 반사 수혜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는 신중히
- 전사 수익성 개선 구간. ROE 개선으로 PBR 상승 전망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글로벌리츠 김디은

2026년 6월 2주차

- 12일 스페이스X 상장.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 극심할 것. 투자자 기대가 실망으로.
- 22일 마블 테크놀로지, 플렉스 S&P500 편입. 아발론 베이&에쿼티 레지덴셜 합병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Mexico ETF(EWW), 마블&플렉스, 아발론 베이

[글로벌전략] 6.12일 스페이스X 상장.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 극심할 것. 투자자 관심이 실망감으로 바뀔 것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 상장 직후 2~3일 전후 주가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공격적 차익 실현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한 과거 경험상 IPO 이후 몇 달간 주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도 빈번해, 이에 실망하여 상장 전 상당히 높았던 투자자 관심이 빠르게 식을 가능성. 스페이스 X 상장 전후로 미국 증시 및 기술주 주가 하락이 발행한다면 이는 스페이스X 상장보다는 다른 요인(이란 전쟁 종전 협상 장기화, ECB 금리 인상 시 통화 긴축 현실화 우려 등)이 더 클 것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Mexico ETF(EWW): USMCA 연장 기대감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

6.2일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16년 연장을 요청. 르블랑 장관에 따르면 USMCA 발효 이후 3국 간 교역이 약 32% 증가했다고 언급.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협정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지만, 우리는 이를 더 확실히 연장하고 싶다"고 발언. 7.1일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일을 앞두고 협상 본격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8%로 하향. USMCA 협정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우려 장기화에 따른 조정으로 협정 연장 시 반등 모멘텀

[미국주식] 6.22일 S&P500에 편입되는 2종목(마블 테크놀로지: MRVL, 플렉스: FLEX) 관심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의 분기 리밸런싱에 따라 마블 테크놀로지는 풀 코퍼레이션(NAS:POOL), 플렉스는 캠벨 컴퍼니(NYS:CPB)를 각각 대체. 마블 테크놀로지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커스텀 칩과 네트워킹 부품 설계, 플렉스는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기업들의 위탁 제조 파트너. S&P500에 편입되면 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ETF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해 수급 호재로 작용

[글로벌리츠] 아발론 베이(AVB): 사상 최대 아파트 리츠 합병

아발론 베이(AVB)와 에쿼티 레지덴셜(EQR)은 미국 1·2위권 아파트 리츠로 합병 비율 AVB 1주당 EQR 2.793주 조건의 주식교환 방식 합병 발표, 2026년 하반기 완료 예정. 합병 후 시가총액은 약 520억달러로 18만 세대 이상을 보유한 미국 최대 아파트 리츠 탄생 예정. 합병 목적은 임대료 성장 둔화 속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 합병 후 18개월 내 약 1.75억달러 비용절감 효과 기대. 주가 관점에서는 단기 급등 재료보다는 중장기 효율 개선 이벤트→금리 하락·임대료 회복·실제 시너지 달성 여부가 향후 주가 핵심 변수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젠슨 황도 막지 못한 투매

-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미-이란 전쟁 이후 가장 큰 낙폭 기록
- 젠슨 황 CEO의 삼쏘회동 앞두고 피지컬 시 랠리 숨 고르기
- 외국인 매도는 리밸런싱, 금융투자가 좌우한 증시 방향성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란 전쟁 이후 가장 큰 낙폭 기록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채 금리 상승,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3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급락세를 시현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은 +17.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 견조한 고용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지지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며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여기에 중동 불확실성 부각되며 위험자산 회피심리 강화. 이스라엘은 주말 사이 이란의 공습에 반발하며 이란의 서, 중부 군사 목표물을 공격. 이에 예멘 후티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과 함께 홍해 내 이스라엘 선박 통행 봉쇄를 선언하며 유가 재차 상승. 증시 전반 투자심리 위축되며 낙폭 확대

젠슨 황의 잇따른 AI 협력 발언도 역부족, 증시 반등 효과는 제한적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옥을 방문하며 AI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젠슨 황 CEO는 AI 관련주가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평가하며 투자심리를 지지. 또한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의 최대 메모리 파트너라고 언급했고, SK하이닉스와 2년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

또한 네이버와 기가와트급 초대형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힘. LG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용 냉각 및 전력 기술이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 현대차와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등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

다만 AI 협력 관련 호재가 잇따라 전해졌음에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이 시장을 압도. 관련주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 마감

투매 속 대부분 업종 하락. NAVER 홀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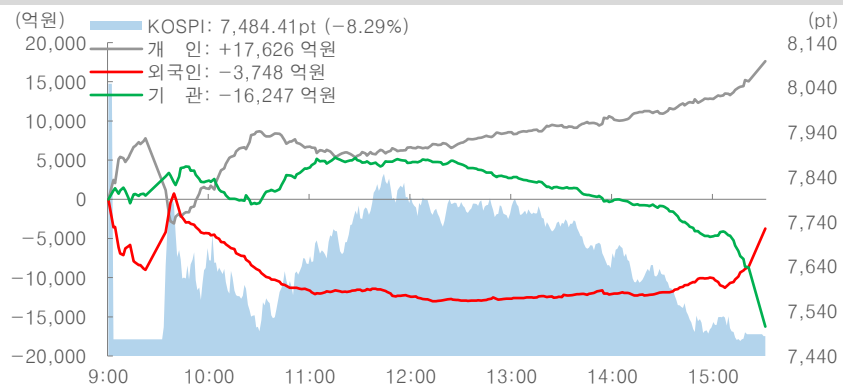
약화된 투자심리로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매출 출회

반도체: 삼성전자(-10.2%), SK하이닉스(-7.7%), SK스퀘어(-11.1%)

자동차: 현대차(-8.7%), 현대모비스(-12.2%), HL만도(-8.7%), 현대위아(-9.9%)

젠슨 황 방향 관련주: NAVER(+9.2%), LG전자(-11.6%), LG씨엔에스(-9.4%)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불안한 시장 분위기, 눈길 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 증시 불안 속에도 이익 내러티브 유지 — 기업가치제고 목표 달성 시 주주환원 규모 추정
- 전년 대비 증익의 약 80%는 반도체 2社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FCF 50% 내 추가환원
- 목표 달성 시 환원수익률 상위 · 모니터링 기업 리스트 제시

증시불안 속 기업가치제고계획 점검

6월 초 美 금리인상 불안과 반도체 향후 실적을 둘러싼 노이즈가 겹치며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이익에 대한 내러티브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1분기 실적까지만 발표되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큰 폭의 증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반도체 및 반도체 이외 기업이 시장 실적 추정치에 부합하고 기업가치 제고계획상 주주환원 목표를 달성할 경우의 환원 금액과 수익률을 추정한다.

반도체 2개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주주환원 규모

컨센서스 기준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폭에서 반도체 2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조세특례 해당기업(배당소득 분리과세) 의무 공시를 통해 11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과 함께 3년 FCF의 50%에서 잔여재원 발생 시 추가 환원을 밝혔으며, SK하이닉스도 2025년 말 제고계획 자료에서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 시(Net Cash 전환 · 적정 현금 확보) 3년 누적 FCF 50% 범위 내 추가 환원을 제시했다. 시장 컨센서스상 FCF는 삼성전자가 2026년 220조원(당사 추정 300조원 이상), SK하이닉스가 144조원 수준이다. 2분기 이후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한다면 주주환원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26년 주주환원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삼성전자 우선주 할인율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년 동기 20% 수준이던 우선주 할인율은 현재 35% 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보통주 의결권을 포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 곧 의결권 프리미엄이 크다는 시장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프리미엄에 주주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내재돼 있다고 추정한다. 의결권이 주주환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수단인 만큼, 향후 주주환원이 불확실할수록 의결권의 상대적 가치와 우선주 할인율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환원 구체화에 대한 기대는 외국인 수급에서도 드러난다 — 보통주 순매도 속에서도 외국인의 우선주 지분율은 전년대비 2.5%p가량 상승했다. 선제적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면 이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의결권 프리미엄과 우선주 할인율이 함께 축소될 여지가 있다. 이익 내러티브가 견고하다는 가정 하에, 주주환원정책 가시화는 매크로 · 할인율 관련 노이즈 속에서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주주환원 목표 달성시 환원 수익률 상위 기업 리스트

반도체 상위 2개사를 제외하더라도 2025년 대비 증익이 기대된다. 6월 8일 증가 기준으로 제시 주주환원 목표 달성 시의 환원 수익률(현금배당 + 자사주 매입 · 소각) 상위 기업을 정리했다. '25년 목표를 달성한 기업 중 환원 수익률 상위로는 케이티앤지 · 메리츠금융지주 · 신한지주 · 키움증권 등이 있으며, 2025년 목표는 미달성했으나 달성 시 높은 '26년 환원 수익률이 기대되는 지역난방공사 · 현대그린푸드 · BNK금융지주 등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함께 제시한다.

성호전자 (043260)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투자 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6.06.07)

41,700

스몰캡 업종

광 I/O 시대의 정렬자

- ADS테크 인수를 통해 액티브 얼라인 장비회사로 변모
- 2028년부터 본격 개화가 예상되는 스케일업 광 시장
- 2028년 공장 증설분까지 선반영. 스케일업 광 개화속도가 관전포인트

ADSTECH 인수를 통해 액티브 얼라인 장비회사로 변모

동사는 2025년 12월 액티브 얼라인 장비회사인 ADSTECH를 인수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광통신 장비로 전환함. 2027년 이후 액티브 얼라인 장비 매출 비중은 7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액티브 얼라인 장비는 광섬유, SiPh, InP 레이저 등 이중 광소자 간 도파로 및 광축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실제 광 신호를 카메라와 센서로 측정·정렬하는 핵심 공정 장비

2028년부터 본격 개화가 예상되는 스케일업 광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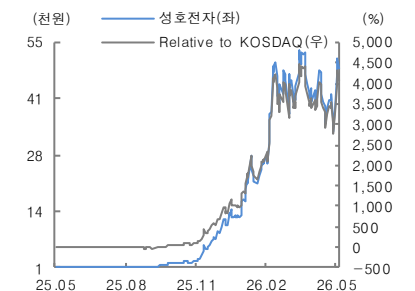
스케일업 광 시장은 202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 NVIDIA는 파인만(Feynman) 아키텍처부터 랙 내부 NVSwitch 2계층에 CPO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서버 단위에서 광 I/O가 직접 채택되는 시점은 파인만 이후 세대인 2029~2031년 사이로 예상됨. 반면, 일부 하이퍼스케일러 ASIC 진영은 2028년부터 연산용 ASIC에 CPO 및 광 I/O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28년 시장 개화에 앞서서 2027년부터 광 I/O 장비사 매출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28년 공장부지 증설분은 선반영. 광 시장 개화속도가 관전 포인트

동사의 28년 예상 P/E는 10배이나, 현재 보유 중인 CB, BW의 희석 시가총액 반영시, P/E 20배로 현재 주가는 신규 공장 1·2부지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 부분을 상당 부분 선반영. 다만, 2028년 이후 개화가 기대되는 스케일업 광 시장은 현 시장 대비 10배 이상의 성장 잠재력이 존재함. 현 주가에서도 중장기 투자 매력은 유효함. 다만,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ASIC 진영의 광 I/O 채택 규모, NVIDIA 차기 로드맵에서 NVSwitch 1계층 및 서버시장 광 I/O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

KOSDAQ	1002.44
시가총액	34,610억원
시가총액비중	0.51%
자본금(보통주)	355억원
52주 최고/최저	53,200원 / 1,027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88억원
외국인지분율	3.64%
주요주주	서릉전자 외 12 인 55.2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3	57.9	1,543.1	3,966.7
상대수익률	36.0	75.9	1,415.7	2,967.8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073	2,316	2,724	7,944	12,977
영업이익	63	76	300	2,065	3,698
세전순이익	131	1,173	4,435	1,981	3,575
총당기순이익	81	910	3,441	1,537	2,773
지배지분순이익	80	910	3,441	1,537	2,773
EPS	138	1,341	4,852	2,167	3,911
PER	8.1	6.9	8.4	18.9	10.5
BPS	2,462	3,697	8,452	10,692	14,685
PBR	0.5	2.5	5.8	4.6	3.3
ROE	6.5	46.3	81.0	22.6	30.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주: BW, CB에 따른 희석분 미반영
자료: 성호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롯데쇼핑 (02353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홍성원 RA

seongwon.ho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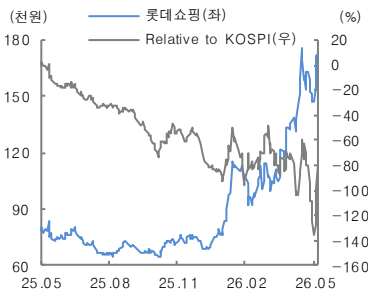
173,000

(26.06.05)

유통업중

KOSPI	8160.59
시가총액	4,89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9%
자본금(보통주)	14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5,700원 / 64,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61억원
외국인지분율	10.53%
주요주주	롯데자주 외 26 인 60.13% 국민연금공단 10.6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4.9	80.2	133.2	121.5
상대수익률	6.2	23.3	17.1	-23.7



롯데쇼핑 CEO 간담회 후기

- 백화점 외국인 전용 카드 서비스 확대
- 대형마트 홈플러스 반사 수혜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는 신중히
- 전사 수익성 개선 구간. ROE 개선으로 PBR 상승 전망

주요 사업부 CEO와 간담회 개최

지난 금요일 롯데쇼핑은 각 부문별 CEO와 애널리스트 간담회 진행. 간담회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각 부문 대표님과 주요 현안에 대한 Q&A가 이뤄졌는데 2분기 현황과 사업부별 전략을 외에도 경영진의 사업부별 전략 및 투자자들의 시각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백화점: 외국인 전용 카드 서비스 확대, 지방 중소 점포는 상권 전략 재수립

백화점 사업부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외국인 전용 멤버스 카드를 발급 중. 이 카드는 교통 카드 기능과 롯데그룹의 쇼핑 채널에서 사용할 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임. 본점을 시작으로 5월에 잠실점, 그리고 6월에 부산 본점에서도 발급 시작. 어느 때 보다 외국인 매출이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험과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서비스들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국내 점포 전략과 관련하여 잠실, 부산점과 같은 핵심 메가 점포의 리뉴얼 외에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의 지방 점포는 해당 상권에 맞게 리뉴얼 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중. 결국 백화점 점포 전략은 점포별 전략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시키는데 집중

대형마트: 홈플러스 반사 수혜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투자는 신중히

대형마트의 경우 서울역점과 부산 광복점 외국인 매출 비중이 각각 48%, 20%에 이룸. 대형마트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점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지만 마트 산업 전체의 구조적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역부족. 서울역점에 외국인 고객이 넘쳐나지만 인근 점포로 분산시킬 수 없고 서울 중심부에 마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점이 한계

홈플러스 폐점으로 경합 점포의 매출이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점은 명확한 사실. 다만 경합 점포의 성장 효과를 제거할 경우 성장의 한계가 뚜렷한 대형마트 점포 운영 전략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

현재 진행 중인 오키도 CFC 투자는 하반기 부산에 오픈하는 1호기 안착이 우선. 2, 3호기 투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나 1호기 성공 여부가 2호기 투자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0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00,000원(12M FWD PER 15배) 유지. 국내 소비 회복뿐 아니라 외국인 매출액 급증으로 전례 없는 호황 기록 중. 여기에 전 사업부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매우 신중한 투자 결정을 통해 ROE 개선, PBR 상승 전망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